**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사도행전 16장 6-15절>**

**6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8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11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압볼리로 가고**

**12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3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7-8월 휴가철에 여행계획 갖고 계신 분들 많을 줄 압니다. 여행의 묘미 중 하나는 의외성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철저한 계획 속에 떠난 여행이라도, 여행중에는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곤 합니다. 길을 잘못들어 고생하기도 하고, 뭔가를 잃어버리거나, 의외의 사건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행중에는 또한 의외로 좋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모퉁이를 돌며 갑자기 시야에 들어오는 멋진 풍광에 넋을 잃기도 하고, 처음 만난 누군가의 친철한 도움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듯한 어떤 일이 후에 중요한 의미로 남기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유럽행 배에 오른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 그렇게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은 무엇일까?

지난 번 설교에서 다루었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였으나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이에 바울은, 지도에서 보듯, 북쪽으로 걸음을 옮겨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 계속 북쪽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무시아 지방을 통과해 드로아까지 갑니다. 거기서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게 되지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청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것을 하나님의 싸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유럽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하고, 그 즉시 거기로 떠나기를 힘씁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드로아에서 출발해 에게 해에 위치한 작은 섬 사모드라게를 지나 이튿날 빌립보 근처의 항구도시 네압볼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륙으로 약 16킬로를 이동하여 빌립보에 이릅니다. 빌립보는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으로서, 수도는 아니었지만, 로마의 수비대가 주둔하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 성에서 며칠을 머뭅니다. 아마도 여독을 푸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한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성문 밖 강가로 나갑니다. 당시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 도시 안에서는 공인되지 않은 종교활동이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성문 아치에 이 금지규정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문 밖 강가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여성들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 옆에 앉아 그들에게 말을 겁니다. 아마도 가벼운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점점 진지한 내용으로 발전되었고, 결국 그 여인들은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그 복음에 반응합니다.

두아디라 시에서 온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 일을 기록한 누가는 그녀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적습니다. 정식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던 그녀는 그처럼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 그녀가 자기 식솔들과 더불어 세례까지 받았다는 사실은 그녀의 회심이 얼마나 진지하고 단호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아가 그녀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거기 머물도록 배려합니다.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유럽 최초의 교회가 그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겪게 되는 의외의 일들에 주목합니다.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은 여러모로 바울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보았던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이었지요. 정확히 말하면, ‘마게도냐 남자’였습니다. 우리말 성경과 달리, 체코어와 영어성경에는 모두 그를 남성으로 표기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들었던 사람들은 그처럼 여성들이었고, 최초의 회심자 역시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루디아라는 여인은 두아디라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두아디라’는 어디에 있는 도시일까? 지도를 보시면, 두아디라는 바로 여기,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도시로서, 당시에 염색업, 특히 푸른 기가 도는 자줏빛 염색으로 유명하던 상업도시였습니다. 그 자색 옷감은 주로 왕족과 귀족들의 옷에 사용되던 고급 옷감이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루디아는 그 두아디라의 고급 자색 옷감을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여와 판매하던 부유한 여성 사업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유럽 본토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로부터 건너온 이주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유럽 땅 최초의 그리스도인은 유럽인이 아니라 아시아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신비롭게 일하시지요...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시더니,이렇게 그를 유럽으로 이끄셔서 거기 와있던 소아시아 출신 이주여성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녀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거기 그녀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바로 이 교회가 후에 빌립보서의 수신자가 되는 빌립보교회입니다. 이후 두아디라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되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 하나로 등장합니다. 분명 루디아는 그 두 교회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입니다.

예전에 영국 런던에 갔을 때,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큐티책자를 가지고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책자는 하루에 한 미전도종족씩을 소개하고 관련 기도제목을 수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한 아시아인을 만나 대화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그날 아침에 읽고 기도했던 그 미전도종족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골짝에 모여 사는 그들, 찾아가 만날래도 만나기 쉽지 않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대도시의 다문화 환경 속으로 섞여들면서, 바로 우리집 문지방 앞에서, 바로 내가 다니는 길 위에서 만날 수도 있게 되었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의 변화된 상황이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열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참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시곤 합니다. 우리는 이 순서로 꼭 이렇게 돼야 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 다르게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 길이 막혔으므로 이제 그 일은 끝이라 생각하곤 하지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다른 경로를 통해 새롭게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선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듣는 이의 마음을 여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역할을 약화시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보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또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읽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로서 이 복음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을까요?

빌립보의 바울에게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에 그는 기도할 곳을 찾아 나아갔다고 합니다. 이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갔다는 말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성문 안에서 불가하였기에 성문 밖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영적인 일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곤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기도시간에 성전을 향해 올라갔고, 바로 그 길에서 하나님의 치유사역에 쓰임받았습니다. 본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안식일이면 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갔었고, 그날도 습관처럼 그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난 여인들에게 예기치 않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제 빌립보에서 뭘 어떻게 해야할지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날 그 시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답을 얻었습니다. 아니, 그 가는 길에 그는 거기서 해야할 그 일을 어느덧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습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직업 특성상 주일에 매주 교회 나와 예배 드리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매주 이 꼬빌리시 교회당에 나와 예배드려야 한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여기서 매주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그처럼 주일에 예배를 건너뛰는 일이 잦아질 경우, 자칫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조차도 시나브로 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날 그 시간에 어디 계시든 그 자리에서 잠간이라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의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그의 겸손하고 열린 마음입니다. 어떻게 그는 그 성문 밖 강가에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했을까? 그는 드로아에서 보았던 환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빌립보에서의 첫 결신자는 반드시 마게도냐인 남자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처럼 화려하고 부유한 여성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받는 일을 경험하지 못한 인간의 내면은 끝내 공허하고 답답하고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 루디아의 마음밭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을 줄… 그처럼 아무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여인이 그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을 줄…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어떠합니까? 내가 가진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혹은 미움이나 교만이나 아집 때문에…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막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물건 파는 일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질의 이동이 아니라, 존재와 존재 사이의 영적인 교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마치 내 소중한 옥합을 깨는 일과 같습니다. 복음의 향기는 먼저 나를 깨뜨리지 않고는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연약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셔서 복음이 우리 자신을 깨고 밖으로 퍼져나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그 뒤에 신비하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느껴지는 이가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려 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깨뜨려 주위에 복음의 향기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반면, 어떤 신앙인의 경우는,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 사람 자신부터가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기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할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내게는 없고 저 사람에게는 있는 그것이 뭔지 묻고 싶게 만들 것입니다. 전도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온유하고 신실한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매년 7월 초에 이 나라 체코는 중요한 두 날을 기념합니다. 먼저 7월 5일은 씨릴과 메또데이 선교 기념일입니다. 9세기에 그리스 교회로부터 파송되어 슬라브 민족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며, 그들에게 문자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해주고 복음을 전해주었던 두 형제 선교사 씨릴과 메또데이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1세기 바울을 통해 유럽 대륙에 처음 복음이 전해진 후 약 800년이 더 흘러서야, 이 체코 땅에 그 두 선교사를 통해 기독교가 전파된 셈입니다. 다음으로, 7월 6일은 얀 후스 순교 기념일이지요. 15세기 초 부패한 교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길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고 개혁을 시도하다 공의회에 소환되어 화형 당한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 사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미 복음이 전해졌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복음이 왜곡되고 독점된 현실 속에서 다시 그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제대로 들려지고 체험되게 하려는 선교적 노력이 그처럼 15-16세기 이 체코 땅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시 시간이 흘러 21세기 지금 이 곳의 영적인 현실은 더욱 암울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곳으로 휴가를 떠나며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사람을 위한 좋은 소식이 아직 그 마음에 와닿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아시아에서 온 이주민 그리스도인으로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나라 안에서 힘도 없고, 말도 잘 안 통하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상을 바꾼다느니, 체코를 복음화한다느니, 그런 거창한 얘기 대신에, 앞서 바울이 했던 작지만 실제적이고 위대한 일들을 함께 해나가면 어떨까요? 정해진 시간에 늘 하던 대로 성실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위에서 성령을 좇아 말과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크신 하나님을 내 좁은 틀 속에 가두지 않고, 지금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편견 없이 바라보며 대하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려 노력하는 일… 그렇게 내 뒤에 있는 신비하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무언가,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고 신실하게 나타내며 사는 일…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이 곳에서 그렇게 작지만 위대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